

플라톤을 위한 변명

「파이드로스」에 부쳐

김윤식

문학평론가·서울대학교수

책의 해인에도 책이 잘 안 팔린다는 신문보도가 크게 나와 있다. 이런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조금 기묘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어째서 책의 해이면 책이 잘 팔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무슨무슨 해라든가 무슨 날 정하기란 그러한 특정대상이 안고 있는 결여사항에 관련되었음이 보통이 아니었던가. 몇년 전이던가 책과 관련된 표어에 이런 것이 있었다. '책속에 길이 있다'라고. 이 표어에서도 위의 경우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없으란 법도 없다. 책속에도 물론 길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여러 곳에서도 길은 있지 않겠는가. 단지 책도 그런 길 중의 하나일 따름. 자칫하면 독서만이 제일인 것만양 오해될 틈이 생기기 쉬운 표현이었던 것이다.

썩 오래된 일이나, 어떤 글쟁이는 이런 표현조차 한 바 있었다. "册만은 '책'보다 '冊'으로 쓰고 싶다"(상허)라고. 그는 "책은 읽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어루만지는 것인가"라고 자문하고 그 모두라고 주장하지 않겠는가. 책에 대한 물신적 숭배가 여기까지 이르면 가히 병적이라 할 수 없을까. 이러한, 자기 눈에 물대기식 사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하리라. 이런 사고를 따져서 그 부당함이랄까 부적절함을 일깨우는 정신(의식)을 두고 칸트라는 사람은 '비판'이라 불렀다. 그는 인간의 감성이나 이성 어느 쪽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물 자체(본질)에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의식이야말로 철학하는 마음이라 보았다. 그의 스승격인 플라톤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 철학자 권속들의 참다운 슬기찾기 놀음이 어떠한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플라톤은 「국가론」이라는 주제 외에도 「소크라테스의 변명」 「향연」 「파이드로스」(Phaidros) 등의 대화편이 있다. 매미소리 들리는 아테네 교외의 시냇가에서 변론작가 파이드로스와 변론술과는 달리 진정한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토론한 「파이드로스」는 그 부제가 「미(에로스)에 관하여」로 되어 있음이 인상적이다. 이 대화속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장면도 들어 있어 플라톤이 스스로를 저 변론술사들과 얼마나 다른 자리에 서고자 했는가를 후세인으로 하여금 엿보게 하고 있다.

발명의 천재 테우토가 이집트의 대왕에게 글자의 발명을 보고하였다. "대왕이여, 이 글자라는 것을 배운다면 사람들의 슬기가 높아져 사물을 기억할 터입니다. 제가 발명한 이것은 기억과 지혜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에 대해 대왕은 다음처럼 비판하여 마지 않았다. "나의 가장 뛰어난 기술자 테우토여, 그대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 사람이 만일 글자라는 것을 배운다면, 기억력에 대한 훈련을 게을리한 나머지 그들 영혼 속에는 망각하는 성질을 심게 된다. 그들은 씌어진 것을 신뢰하여 사물을 자기내면에서 기억해 내지 않고 바깥에서 기억해 낸다. 그대가 발명한 것은 그러니까 기억의 비결이 아니라 想起의 비결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대 덕분에 대단한 박식가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한갓 껌떼기일 따름. 참된 슬기 축에는 들지 못한다."

씌어진 책이란 무엇인가. 인간 영혼속에 깃든, 내면적인 요소, 곧 기억력의 훈련을 망치게 한 빌미가 바로 책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화가의 그림마냥, 씌어진 말들은 언제나 굳어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다. 혹시 우리가 의심스러워 혹은 미진한 구석이 있어 물어볼래야 그럴 수가 없다. 책이란 몇 번을 들추어보아도 같은 내용 같은 표현 그대로이다. 만일 우리가 스승이나 친구와 마주 대하여 질문한다면 그때그때의 정황에 따라 대답을 들을 수 있지만 책이란, 화폭에 그려진 소나 말마냥 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보고 法을 설하라는 말이 있거니와, 책은 그렇지 못하다. 바보 같은 치들만이 그것을 진리 자체인 양 몸에 익혀 우쭐대고 있다.

플라톤의 책 혐오사상은 아마도 대중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 없을까. 말하기의 그림자 정도가 글쓰기라는 것. 그렇다면 참된 슬기를 찾는다는 플라톤을 포함한 철학자들의 저술이란 어떠한가. 그 역시 한갓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후기구조주의파의 두목격인 데리다라는 사람이 그다. 마음의 내면에서 기억되는 참된 슬기(목소리 중심주의) 역시 글쓰기와 한치도 다름없는, 같은 범주라는 것. 참된 슬기로서의 기억력 자체도 근거가 썩 빈약한 것이라고 그는 우기고 있지 않겠는가.

뉴스	2	책의 해에 책이 안팔린다·외
표지인물	4	신라와 불교의 행복한 만남 '경주 남산' 「겨레의 땅 부처님 땅」 펴낸 윤경렬응
연중기획	6	자생적 근대정신 노래한 민중의 경전 — 윤석산 한국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⑦ 「응답유사」
초점	8	한국전쟁 연구서, 무엇이 얼마나 나와있나 전통 수정 절충주의 등 세 갈래...전면적 자료공개 시급
	9	통일문제, 논의대상에서 이전 실천목표로 통일방법 및 정책 제시한 연구서 출간 잇달아
서평	10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 조희연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 김인춘
	11	갈브레이스 「만족의 문화」 — 황 민
	12	알튀세르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 윤소영 위베르 「이오네스코 연극미학」 — 안치운
	13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 허 균
	14	남정현 「허허선생 웃밧을라」 — 이성욱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 서영채
출판화제	15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 생명중심 가치관의 실천적 기록 담은 책들 잇달아 출간
	16	동양적인 것이 오히려 더 현대적이다 신유교윤리 등 서양식 합리주의의 지양하는 책들 주목끌어
	17	천재와 광기의 상관관계를 조명한다 예술가등 창조적 정신의 본질 파헤친 책들
저자인터뷰	18	사람이 중심 되는 한국사 만인보 「이야기 인물한국사」 전5권 펴낸 이이화씨
서점기획	19	지역사회 독서문화 이끄는 든든한 일꾼 경북 경산의 책나라 서점
이 책 그 사람	20	「가자, 다시 조선으로...」 엮은 박태권씨 「공기와 꿈」 번역한 정명란 교수
	21	「새 이함경」 펴낸 이연숙씨 「바퀴 달린 모자」 펴낸 신형권씨
에세이	22	영원처럼 멀고도 가까운 곳의 죽음들 — 윤호병 호국의 달 6월에 읽는 전쟁서편
세계의 책	24	미국 흑인문제의 건강한 해결책·외 — 배병삼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 / 도서음성정보 서비스 / 정기구독안내